

2023 순전한 믿음 5

귀에 듣기 좋은 혼적인 메시지가 아닌 자아가 죽는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창세기 3:4-6]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 존재와 공간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믿음'이다.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정의되기도 한다. 천국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미가 있다. 지옥이라는 공간에는 사탄이 존재하기에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존재하기에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마가의 다락방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내가 있는 공간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공간에, 누구에게 임재하실까? 영적 세계는 '관계'로 구성된다. 관계의 깊이에 따라 존재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이 되어 하나로 거하신다. 세 분의 관계는 '친밀감'이다. 세 분은 다른 분이지만 완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로 계신다.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곳을 가도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성령님의 뜻을 존중하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다. 마음의 순수한 동기는 깊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절대적이기까지 했다.

'친밀감은 한 공간에 함께 존재할 때 형성된다. 마음의 공간에 함께 거해야 하고, 실재적인 공간에 함께 거해야 한다.' '마음의 공간에서 하나 될 때 실재적 공간의 범위는 다양해지고 넓어진다.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관계.'

2. 확신의 믿음, 승리하는 신앙

[로마서 8:5-8]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도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위의 말씀은 기계적 공식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다.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는 '종', '자녀', '신부'와 같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신부는 신랑의 말을 듣고 하나로 연합된다. **주인 없는 종은 없고, 부모 없는 자녀는 없다. 신랑 없는 신부도 없기 때문이다.**

3. 생명과 미혹

1) 생명은 힘이다. 생명은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에는 생명이 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한다.
2) 평안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 얻는 상급이다. 평안은 폭풍 후에 온다. 평안은 전쟁을 통해 얻는다. 내면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육의 생각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기 좋아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쏟아 놓는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의 힘을 주신다.

4. 교묘한 미혹 - 혼의 메시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힘으로 장악하고 다스리기 원한다. (사탄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것이다. 사탄의 방법은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을 깨우는 것이다.

[창세기 3:2-3]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4-6]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2절 - 여자가 말한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자유한 존재인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3절 - 동산 중앙에 먹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아담의 생각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4절 - 뱀의 유혹이 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의 아비임을 알아야 한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5절 -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야망'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야망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야망. (하나님은 야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야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야망은 아주 작은 곳에서도 교묘히 나타날 수 있다)

6절 - 미혹의 경로다. 이미 야망이 있는 상황에서 '나무를 본즉' 나무가 다시 보이는 것이다. 욕망의 눈으로 나무를 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함'

아담과 하와는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혼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능력과 평강이 깨졌다.

'바벨탑'

결국 사람은 육체가 되었고, 육의 생각 안에서 '인본주의' 바벨탑을 만들었다. 바벨탑의 뿌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인본주의 뿌리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욕망의 탑'**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좋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영광한다. 그 바벨탑 안에 규격화되어 들어가야 바벨탑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벨탑에 맞는 규격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벨탑의 벽돌 모양으로 깎는다. 바벨탑이 원하는 형상으로 맞추어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된 깎지 않은 돌은 바벨탑의 벽돌이 될 수 없고, 세상의 흐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5. 인본주의 메시지

- 1) 듣기 좋은 메시지 - 사람에게서 맞춘 듣기 좋은 메시지.
- 2)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번영의 메시지 - 욕망을 채우는 메시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 고난이 없는 약속의 땅은 없다.
- 3) 깨달음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메시지 - 적용이 아니라 해석과 깨달음을 위해 말씀을 듣는다.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없다. 신앙은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장하는 것이다.
- 4) 십자가 없음 -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다. 성령의 진짜 능력은 육이 죽을 때 나타난다.
- 5) 가짜 믿음 - 혼의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다.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6. 순종 (진짜 믿음의 결과)

[창세기 22:8-10]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세기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혼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영 = 불순종의 영 (죽지 않은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 -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영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영 = 순종의 영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 -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기가 죽는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뜻(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이삭의 순종이다. 이삭 안에 자기 생각과 뜻의 충돌이 없었을까?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자기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박의 상태까지 갔다. 자신의 모든 힘을 결박시킨 상태, 이해되지 않지만, 자신의 자아를 죽인 상태. (이미 죽은 것이다) 이런 아들 이삭의 순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치환된다. 결국, 자기가 죽는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진짜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혼적인 생각과 육신의 자아를 결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제단 위에 죽는 것이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린다. 은총이 부어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라. 혼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돼라.